



미국 연준의 9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시사점

이아름 연구원

■ 지난주 3일간에 걸쳐 3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(Federal Reserve Bank) 총재가 잇따라 9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.

- 2013년 8월 5일 리처드 피셔(Richard Fisher)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이 7.4%¹⁾로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가까워졌고, 9월부터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힘.
- 8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찰스 에번스(Charles Evans)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2013년 하반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2.5%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9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.
 - 그동안 에번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충분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양적완화 지속을 지지했지만 처음으로 9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함.
- 같은 날 데니스 록하트(Dennis Lockhart)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올해 3차례²⁾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언제든지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될 수 있다며 앞으로 발표될 거시지표에 따라 9월에도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힘.

■ 월스트리트저널(WSJ)에 따르면 전면적 양적완화를 실시했던 지난해 9월보다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개선되었다고 진단함.

- 2012년 9월 미국의 신규 취업자 수는 월평균 13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9만 명 수준으로 증가함.

■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46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망조사(economic forecasting survey)에서 조사대상자 중 1/3이 양적완화 축소가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, 연준이 2014

1) 4년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함.

2) 올해 FOMC 정례회의는 9월 17~18일, 10월 29~30일, 12월 17~18일에 개최됨.

년까지 미룰 것으로 예상한 경제학자는 5명에 불과했음.

- 2013년 3/4분기 경제성장률이 2.3%, 4/4분기는 2.7%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준이 연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만큼은 성장하고 있다고 밝힘.
- 최근 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채권 매입 규모를 매월 8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단계적으로 양적완화를 축소함으로써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■ 또한,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연준이 9월에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.

- 골드만삭스 경제학자인 크리스 다우시(Kris Dawsey)는 양적완화 축소 여부는 궁극적으로 경제지표 개선여부에 달렸으며, 9월에 연준이 양적완화를 시작하면 버냉키 의장이 최근 제시한 일정처럼 2014년 중반 경에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밝힘.

■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 월스트리트저널(WSJ)에 따르면 9월 6일에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전망함.
- 이에 따라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2013년 8월 8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는 시간문제이며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언급함.

(WSJ, FT 등)